

주요 선진국 해외직접투자 현황 및 정책 시사점(요약)

1. 조사 목적

□ 주요 국가의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우리나라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전략 방향과 정책 시사점을 도출

- 해외투자는 산업공동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현지시장 진출, 수출 증대 등의 효과가 있어 선진국은 지속적으로 해외투자를 확대

* 투자 비중('10년말) : 선진국 82.3%, 개도국 15.3%, 체제전환국 2.3%

* 전 세계 해외투자잔액 : 20조 4,083억불

- '10년말 기준 세계 해외직접투자 잔액의 50.5%를 차지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최근 해외투자를 크게 확대하고 있는 중국의 투자 현황을 조사

주요 국가의 해외직접투자 잔액

(억불)

국가	'90	순위	'00	순위	'10	순위
미국	7,318	1	26,940	1	48,433	1
영국	2,293	2	8,978	3	16,893	2
프랑스	1,124	5	9,259	2	15,230	3
독일	1,516	4	5,419	4	14,213	4
일본	2,014	3	2,784	7	8,311	8
중국	46	25	278	24	2,976	18
한국	23	32	215	26	1,390	25
전 세계	20,942	-	79,622	-	204,083	-

자료: UNCTAD

2. 주요 국가별 해외투자 현황

(억불)

	투자 잔액 (‘10년)	GDP 대비 (%)	투자 금액 (‘10년)	GFCF ^{주)} 대비 (%)	직접 투자 수지	지역별 비중 (%)		산업별 비중 (%)	
미국	48,433	15.5	3,289	33.0	-1,007	유럽	55.9	비금융지주	39.4
						중남미	20.8	금융보험	22.7
						아·태	15.6	제조	15.0
						기타	7.7	기타	22.9
영국	16,893	75.3	110	3.4	349	유럽	59.0	금융보험	27.4
						북미	20.7	제조	18.3
						아시아	9.6	광업	15.6
						기타	10.7	기타	38.7
프랑스	15,230	59.1	841	15.9	-502	EU	58.6	금융보험	29.4
						기타선진국	26.3	제조	24.6
						개도국 등	15.2	정보통신	7.5
								기타	38.5
독일	14,213	43.0	1,049	17.6	-587	유럽	72.0	부동산 서비스	57.8
						북미	17.3	제조	21.7
						아시아	6.4	금융보험	14.6
						기타	4.3	기타	5.9
일본	8,311	15.1	563	5.1	-575	북미	31.6	제조	46.3
						유럽	23.3	금융보험	23.4
						아시아	25.6	도소매	14.0
						기타	19.5	기타	16.3
중국	2,976	5.1	680	2.6	377	아시아	71.9	서비스	30.7
						중남미	13.8	금융보험	17.4
						유럽	5.0	광업	14.1
						기타	9.3	기타	37.8
한국	1,390	13.8	192	6.6	-124	아시아	47.4	제조	36.4
						북미	22.0	광업	16.2
						유럽	18.3	도소매	13.9
						기타	12.3	기타	33.5

주) 1. GFCF(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 장기에 걸쳐 생산에 반복·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국내 고정자산 취득

2. 직접투자수지 = 대내직접투자(Inward FDI) - 대외직접투자(Outward FDI)

3. 우리나라 해외투자의 특징

☐ 투자 규모의 빠른 증가

- 2000년도 215억불에서 2010년 1,390억불로 잔액이 크게 증가
 - GDP 대비 투자잔액은 13.8%로 아직 서구 선진국보다는 낮으나 미국과 일본과는 비슷하고 중국보다 높음.

☐ '06년 이후 해외직접투자가 외국인투자를 초과하는 단계 진입

- '05년에는 해외직접투자수지가 7억불이었으나, '06년에 -63억불 적자
 - 판매망 확보, 해외 생산지기 확보 등을 위하여 해외투자가 확대되는 반면, 인건비 상승 등으로 외국인투자는 감소
- * 직접투자수지 = 대내직접투자(Inward FDI) - 대외직접투자(Outward FDI)

☐ 제조업에 대한 투자 집중도 높음

- 지역별로는 북미, 유럽 등 선진국에 대한 투자 비중이 낮고, 금융 보험업을 포함한 서비스업 투자 비중도 낮은 편
 - 더불어 최근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확대 전략으로 광업 비중이 16.2%로 높은 편이며, 아시아와 제조업 집중도는 다소 완화

4. 주요 국가별 해외투자 정책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 서구 선진국의 경우 해외투자에 대해 대체적으로 중립 원칙
 - 해외투자의 자유화(사전신고제 없음)
 - 자유경쟁 국제협정 주도(대내외 투자자에 대한 차별 금지)
 - 금융보험 등 서비스업 중심의 해외투자

□ 일본

- 해외투자에 대한 구체적 전략 수립 시행
 - 주요 장기 정책 : 아시아 불륨존(중산층 대상) 전략, 인프라 수출 연계 전략
 - 해외투자의 완전 자유화(사전신고제 없음)
 - 최근 중점 추진 부문 : 자원개발, M&A
 - 제조업 중심의 해외투자

□ 중국

- 정부 주도의 적극적 해외투자 확대 전략
 - 주요 정책 : 走出去戰略(적극적인 해외투자전략)
 - 최근 중점 추진 부문 : 자원개발, 선진기술 도입
 - 부분적 자유화 : 미수교국 투자 등에 투자 제한
 - 외환보유고 활용 및 투자공사(국부펀드) 통한 직접투자

□ 한국

- 점진적인 해외투자 규제 완화 및 부문별 중점 추진 전략
 - 중점 추진 부문 : 자원개발, 녹색, M&A
 - 해외투자 관련 사전 신고제 유지, 금융기관은 일부 제한(금감원 심사)

5. 시사점

□ 해외직접투자는 국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필요

- 기업의 해외진출은 경영상의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것으로 기업 입장에서 성장과 쇠퇴를 결정짓는 불가피한 선택
 - * 해외투자로 인한 산업공동화는 주로 언론에 의해 인용되는 부정적 개념으로서, 고용, 국내투자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없음.

□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 창출에 중점을 둔 정책 수립 요구

- 저부가가치의 제품 생산의 해외 이전은 국제 분업화로 인해 불가피한 현상으로 향후 성장을 위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경제구조 전환 필수

□ 신흥국 시장에서 경쟁에 대처

- 주요 국가들이 신흥국 진출을 확대하고 있어 정보 수집과 현지진출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정책적으로 강화하여 경쟁에 대처할 필요

□ 해외 클러스터를 통한 안정적 공급망 구축

- 주요 지역별로 동반진출한 대·중소기업 클러스트 구축을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

□ 자원개발 등 전략적 지원 강화 및 모니터링

- 일본, 중국의 해외자원개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자원개발 투자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도입 효과, 재무건전성 등 요인도 지속적 점검 필요
- 아울러 민·관 공동사업 및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한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여 해외자원개발 역량을 강화

□ 투자 업종 및 지역의 다변화

- 우리나라는 주요 국가에 비해 투자 업종은 제조업, 투자 지역은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어, 이를 보다 다변화 필요성이 있음.
- 특히 금융기관 해외진출은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 앞 금융·비금융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가능하므로 확대할 필요성이 높음.

* 금융보험업 투자 비중 : 한국 8.3%, 미국 22.7%, 일본 23.4%, 중국 17.4%

<참고자료>

국가별 해외투자 지원 기관 및 제도

	주요 지원 기관 및 제도
미국	<p><OPIC : 해외민간투자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 프로젝트 자금 지원 - 정치적 위험 대한 보증·보험 - 펀드 통한 직접 또는 대부 투자
영국	<p><ECGD : 수출신용보증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투자보험 : 개도국 중심, 정치적 위험 보상 <p><UKTI : 영국무역투자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SI(Fiscal Stimulus Initiative) : 주요국 경기부양 사업에 영국 기업 참여 지원 - 정보 제공, 자문, 주선 등 비금융서비스 제공
프랑스	<p><OSEO :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 및 보증지원 · 해외 기술협력 파트너쉽 제도
독일	<p><Agaportal(Hermes 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 투자기업 앞 보증 제공 <p><DEG : 독일투자개발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 투자기업 컨설팅 및 자금 지원
일본	<p><JBIC : 일본정책금융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 현지법인 및 자원개발 사업 중점 지원 - M&A 사업 지원('11년, 외특 회계) <p><JETRO : 일본무역진흥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경제 조사, 분석 및 중소기업 위주 시장개척 지원
중국	<p><Exim China : 중국 수출입은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투자 전용대출 마련('05년) <p><개발은행, 수출신용보험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투자보험(자원개발, M&A, 인프라산업 중점 지원) <p>※ 투자공사(국부펀드) 통한 직접투자</p>
한국	<p><KEXIM : 한국수출입은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투자 자금지원 (자원개발, M&A, 녹색 중점 지원) <p><K-Sure : 한국무역보험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투자 보증 지원 <p><KOTRA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경제 조사, 분석 및 중소기업 위주 시장개척 지원